

전자프린터재단 10개 기술특허 무효화 주장

기업들의 배타적인 특허권이 기술개발에 방해되기 때문에 일부 특허권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디지털 인권보호 단체인 전자프린터재단(EFF)은 변호사, 연구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함께 10개의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FF는 이들 10개 특허는 적용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효화 주장이 제기된 10개 특허는 EFF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받은 2백건 이상의 특허 중 선별한 것이다. 이번에 언급된 특허는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클리어 채널과 닌텐도 같은 대기업의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특허 보유업체들은 '특허 획득을 위해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다'며 '광범위한 특허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도 'EFF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HP와 게이트웨이, 특허분쟁 치열

세계적인 개인용 컴퓨터(PC) 업체인 휴렛팩커드(HP)와 게이트웨이가 특허 침해 혐의로 상대방을 잇달아 고소하면서 강도 높은 특허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델, HP에 이어 미국 개인용 컴퓨터(PC)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이트웨이는 지난 7월 2일(현지 시각) HP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게이트웨이는 HP가 'PC에 장착된 CD롬에서 사용되는 오디오 제어 기술, PC 내 컴퓨터화된 TV 통합 기술, 비디오 및 그래픽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컨트롤 기술' 등 3가지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이트웨이는 지난 5월 샌디에고 법원에 HP를 역제소하는 한편 이번에도 ITC에 HP를 제소하면서 맞불 작전이라는 강공책을 펴고 있다. ITC는 HP의 소장 제출에 따라 지난 한달 동안 게이트웨이가 수입하고 있는 데스크톱, 노트북, 서버 등이 HP의 파워 관리를 포함 7가지 기술을 무단으로 침해 했는지를 조사해 왔다.

HP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사장인 조 베이어는 게이트웨이의 이번 ITC 제소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게이트웨이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은 근거가 확실하며 게이트웨이의 모든 제품 라인에 확대될 수 있지만 게이트웨이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기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명령하면 언제라도 게이트웨이와 법정 밖에서 화해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HP는 PC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6천개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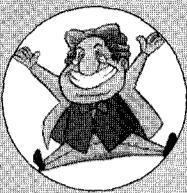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 반도체 분쟁 타결 합의

중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게 부과했던 세금 제도를 수정키로 합의했다고 로버트 켈릭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내 판매되는 반도체 상품에 대해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자국 내 설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의 14%를 환급해, 결과적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에 3%의 세율을 부과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설계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를 없애고 내년 4월까지 이를 자국 내 생산 반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천2백40억달러에 달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진 시점이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면과 콩에 대한 장벽을 없앴고, 미국 소매업체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창업자산 '지식재산권' ②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이유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